

KT, 차기 대표 최종후보에 ‘영업·마케팅통’ 임헌문 유력

예정대로 오늘 최종후보 결정
전·현임직원 구성에 반발 거세
주총서 국민연금 반대 땀 원점
57% 지분 소액주주 표결 관심

오는 7일 발표되는 KT 대표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헌문 전 사장이 KT 대표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임 전 사장은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KT에서 30년을 근무한 ‘KT 맨’으로 구현모 대표가 36년을 KT에서 근무한 것과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역시 신입사원으로 KT에 입사한 박윤영 전 사장도 KT 대표 후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과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을 받아 KT 최종 대표로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T 대표를 전현직 임원 4명만 대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강력



KT 이사회가 공개한 4인의 KT 대표이사 후보들. 왼쪽부터 박윤영(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신수정(KT Enterprise부문장, 부사장), 윤경림(KT 그룹Transformation부문장, 사장), 임헌문(전 KT Mass총괄, 사장).

하게 반발하고 나서 대표 재공모를 진행하거나, 대표 후보 일괄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KT측은 “예정대로 4인 후보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며 “재공모에 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대표이사 선임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월을 ‘대표 공백’ 상태로 보내야 하며 인사와 조직개편도 단행하지 못한 KT가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력한 대표 후보로 꼽히는 임헌문 전 KT 매스(MASS) 총괄 사장은 4인 후보 중 최연장자이다. 2019년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발 과정에서

최종 9인에 들었으며, 유력 후보로 꼽혔다.

황창규 전 KT 회장이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하는 매스 총괄 사장으로 그를 임명했을 정도로 통신업계에서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1987년 KT에 입사한 후 KT 마케팅전략본부 부장, KTF 마케팅연구실장, 단말기전략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지낸 바 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지만 ‘황 전 회장의 삼고초려’로 다시 KT에 복귀해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임 전 사장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된 인물로 평소 임직원들 중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다만, 미래의

기술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전 사장은 4인의 후보 중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KT 네트워크기술연구직에 입사했으며 SK로 이직하기도 했지만 다시 KT로 돌아온 인물이다. 2020년 사장직에 오르기 전까지 KT 컨버전스 연구소장(상무), 미래사업개발그룹장(전무),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기업사업부문장 및 글로벌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쳤다. 그는 박 전 사장과는 달리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MZ 세대에 인기다. 하지만 B2B(기업간) 거래에 경력이 치중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윤경림 사장은 대통령실 및 여권에서 그를 비판하기 전까지 KT 대표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윤 사장은 CJ와 현대차에서 근무한 인물로 통신업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부사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구현모 대표가 후보로 세운 인물 중 2번째로 평가되면서 대표 후보로 최종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7일 예정대로 대표이사 최종 후보 발표를 진행한 후 주총에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다. 주총에서 KT 대표이사 표 대결을 진행한다고 해도 여권의 강한 반대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이 1대 주주로 있는 KT의 2대 주주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같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KT 지분의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지난 1월 11일 지분율이 9.95%에서 2월 28일 8.53%로 줄면서 소액주주들의 비판이 거세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57.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표결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네오피, 글로벌 도약 위해 오지스와 협력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파트너십
상호 구축 서비스 교류·지원나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네오피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지스와 글로벌 도약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최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간의 만남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네오피와 오지스는 글로벌 도약을 위한 강력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며 상호 구축 중인 생태계를 교류하고 확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파이(DeFi, 탈중앙 금융), 지갑 등 양사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협력을 진행한다.

오늘 오후 12시, 최근 오지스가 톤(The Open Network) 메인넷에 성공적으

로 출시한 AMM-DEX(자동화된 시장 메이커-탈중앙거래소) 메가톤 파이낸스에서 네오피 토큰(NPT)과 톤 코인(TON)의 유동성 풀(NPT-TON)이 형성된다. 풀 생성 직후인 오후 1시부터는 톤 코인 1000개를 활용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어드랍은 톤 기반의 지갑인 톤 월렛, 톤 허브, 톤 키퍼에 최소 100불 상당의 폴리곤 기반 네오피 토큰을 전송한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된다.

양사는 블록체인 오픈플랫폼 네오피, 지갑, 폴리곤 기반 DEX 메시스왓 등 자사 핵심 서비스에서도 협업을 이어나가며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 추후 네오피 지갑과 메시스왓 및 메가톤 파이낸스를 연동하고, 네오피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네오피는 동명의 블록체인 오픈플랫

폼 네오피를 기반으로 게임,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 등으로 생태계를 연결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네오피가 영위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해 정부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등 현재 아랍에미레이트(UAE)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사업을 본격 준비 중이다.

오지스는 폴스택블록체인 기술기업으로, 크로스체인 기술과 글로벌 규모의 디파이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웹3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김지환 네오피 대표는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만난 만큼 양사의 공동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U+’ 동영상 리뷰 서비스 론칭

LG유플러스는 리뷰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텐트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고 ‘U+’

‘U+’ 내 동영상 리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애플페이 가능한 통합단말기 보급 확대

NHN KCP, 글로벌 브랜드 인증
중소가맹점 합리적 가격에 보급

NHN KCP는 애플페이 서비스 국내 도입 공식화에 따라 최근 출시된 키오스크와 통합 단말기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를 발표 했으며, 신용카드사 들은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애플페이가 도입될 수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있는 NFC단말기 보급이 문제다. 현재 애플페이 사용 가능 단말기는 10~2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보급됐고 설치율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개 중 1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NFC단말기가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애플페이 서비스가 자리 잡는데 방해 요소로 예상하고 있다.

NHN KCP는 NFC단말기의 보급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인증을 완료하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통합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통합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며, 약 2만대의 단말기가 설치됐다.

/최빛나 기자

“김해공항 입국 日승객 절반이상 에어부산 이용”

에어부산, 지역관광 회복 견인
4개월간 265억 경제유발 효과

최근 4개월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전체 일본 국적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에어부산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입국 관광통계 및 에어부산 자체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본 국적 관광객은 3만

4670명으로 김해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35%)을 차지했다.

이중 절반이상(51%)인 1만7641명이 에어부산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에어부산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관광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약 1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에어부산

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4개월간 265억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노선별로는 후쿠오카 노선이 가장 많은 8342명의 일본인 탑승객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오사카(7280명), 도쿄(1893명) 노선 순으로 일본인 탑승객이 많았다.

에어부산은 일본 노선뿐 아니라 대만 노선 등 국제선 운항 확대에 맞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